

디자인비엔날레 맞아 '남도가 좋아요' 발간

'국내 디자인계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남도는 어떤 디자인으로 다가왔을까?'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맞아 디자인 리더들이 남도를 둘러보고 소개하는 책 '남도가 정말 좋아요-40인의 디자인 리더가 추천하는 인문 여행지'(디자인하우스)를 펴냈다.



# 디자인 리더 40인이 본 남도 40곳



원도 청해진

담양 소쇄원·장성 향교·강진 다산초당 등 건축·시각·브랜드 등 다양한 관점의 시선 먹을거리·잠자리 정보 담은 지도 제작도



소쇄원 제월당에서 '40인의 의자' 회원들.

책을 펴낸 주인공들은 이영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과 함께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을 공부하는 모임인 '40인의 의자' 회원들. 이들은 지난해 연말 40인의 의자 교장인 이영혜 총감독과 함께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외지인들에게 광주와 전남을 알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미래를 그리는 디자이너로서 우리 문화와 뿌리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과 시선을 키우고, 여행자들이, 학자들이, 예술가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남도를 새롭게 그려보고 만져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건축, 시각, 브랜드,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디자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남도를 여행했다. 디자이너 40명 중 상당수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 디자인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다.

디자이너 리더 40명이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로 여행하고 찬찬히 안내하는 남도 40곳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구성적이다. 여행자의 시선보다 감각적이고, 예술가들의 시선보다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양산보가 속세를 등지고 자연을 안았던 소쇄원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48가지 방법론과 양산보의 인문정신을 만났고, 배롱나무의 향연이 펼쳐지는 명옥헌원림에서는 아름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 정신을 엿봤다. 무등산 자락에서는 남종화의 대가 허백련과 의재미술관, 무등길 등을 만났다.

용아 박용철 생가에서는 '떠나가는 배' 한 대목을 낭송했고, 슬로우 시티 증도에서는 국내 최고 천일염을 만들어내는 염부들의 담담함을 고스란히 느꼈다. 무안에서는 품속의 여울 몽탄강과 느리자, 지난 천년 용기를 빚어온 몽탄마을을 마주했고, 진도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진도 아리랑에 몸을 맡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림동 고갈길과 이장우 고택, 말바우 시장, 필암서원과 장성향교, 땅끝 미항사, 글로벌 리더 장보고, 햇살이 그득한 창평 삼지내 마을, 가사문학, 백련사와 다산초당, 화암사, 온조루, 보성 차밭과 강골마을, 낙안읍성 등 알고는 있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마주했다.

여행자도 예술가도 아닌 이들이 바라본 남도는 한국에서 가장 미학적인 땅이었다. 선조들이 선물한 무궁무진한 인문학적 보물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마음이 순해지는 낭랑낭랑한 자연의 곡선, 은거했던 선비들이 남긴 화문과 시 등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때문에 40인의 의자는 남도를 여행하면서 선조들이 남긴 우리 것의 디자인적 DNA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스란히 느끼게 됐다.

책을 펴내면서 무언가 아쉬웠다. 남도를 걸으면서 맛냈던 음식과 숙소 등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책과 함께 여행지 40곳과 남도의 맛집 65곳, 숙소 33곳을 소개하는 지도도 함께 만들었다. 지도 한 장만 들고도 남도의 보물들을 쉽게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디자이너들의 배려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도록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쏘크리에이티브 소션하 대표는 소쇄원을 일곱 차례나 찾았다. 소쇄원에서 빗방울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고, 새벽녘 찬 공기와 한적한 속에서 무릉도원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션하 대표는 "40인의 의자는 남도 여행에 앞서 자료를 찾고, 조선대 이종범 교수, 조선대 권수용 교수, 박삼수 동아시아 교류사 연구소장 등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며 "광주 오월길, 진도 이순신 장군 등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아 아쉽기도 하지만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을 남긴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해 10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서울 예술의 전당 한 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마니프극제아트페어를 둘러본 기자는 관람객들로 북적거린 전시장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니 부러웠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도 그럴것이 비슷한 시기에 개막한 '아트 광주 12'가 흥행실패로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마니프는 평일 대낮인데도 10대 학생에서부터 50대 중년 여성까지 관람객들로 넘쳐났다. 개막 첫날엔 2000여 명이 다녀가는 대박을 터트렸다. '김과장 전시

들었다. 이런 마케팅 덕분에 경기침체에도 4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존폐 위기에 몰렸던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13·9월5~8일)가 '회생' 가능성을 남기고 최근 막을 내렸다. 한국미술협회 주관으로 열린 올해 아트광주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수준높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평소 광주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 김동우, 신홍우, 정연두, 제임스 터렘, 다카하시 무라카미의 최신작을 만난 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아트페어의 성과다.

## '김과장'을 모셔라

장 가는날'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말끔한 양복차림의 회사원들이 많은 것도 이채로웠다.

마니프는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출품하고 부스를 운영하는데 그림 장터. 작가들은 자신의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제작 과정 등을 설명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뛰니뛰니해도 마니프의 성공 비결은 '착한 가격'을 앞세운 마케팅과 '큰손'들을 겨냥한 맞춤형 홍보였다. 특히 그림에 문의한 초보들도 부담없이 아트페어를 찾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았다.

'김과장 전시장 가는날'이라는 부제를 단 이유로 '과장명함'을 제시하는 관람객에 한해 동반가족까지 무료입장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전시장 입구에 '100만원 소품 특별전'을 열어 주머니가 가벼운 애호가들도 끌어

하지만 작품판매는 그리 신통치 못해 아쉬웠다. 경기침체와 마케팅 부족으로 판매액이 12억 여원(목표액 15억 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실패할 필요는 없다. 가까스로 되살아난 아트광주가 장수하도록 미술시장을 키워준다는 누가 뭐라해도 아트페어의 존재이유는 판매실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광주는 미술의 도시이지만 컬렉터는 매우 한정돼 있다. 그런 점에서 지갑이 얇은 미술애호가 겨냥한 착한 가격제와 '거실에 그림 한점씩 걸기' 캠페인과 같은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향의 자존심을 되찾고 지역작가를 돕는 방법이다. 바라건대 내년 아트광주에선 그림을 즐기는 멋진 '김과장'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 강수돌 교수 초청 인문학강좌

### 27일 광주여성재단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이 '돈'을 주제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9월 행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재단 강의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강수돌 교수로 주제는 '삶을 위한 경제-돈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다. 강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돈의 역사를 통해 돈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



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 교육, 경제, 생명 운동에 대해 강의한다. 삶의 학문을 추구하는 강교수는 지난 2005년~2010년까지 충남 조치원 신안 1리 이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의 062-670-0541. /김미은기자 meki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듀주 박주환

농성역 북고당 한약방 홍삼간도로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